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백신접종자들의 돌파감염으로 20일 현재 확진자 250명이 넘는 케이프코드 프로빈스타운 거리의 모습

델타변이 감염 프로빈스타운 확진자 대부분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이 결코 델타변이 감염 방지 못한 것 증명
프로빈스타운 및 케임브리지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매사추세츠 베이커 주지사, 방역수칙 적용 고려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프로빈스타운의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변이로 인한 '돌파감염' 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프로빈스타운은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발표하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당장 어떤 코로나 관련 방역정책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백신접종율이 낮았다면 사태가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사태는 백신이 감염자들의 증세를 약화시켜 중증 및 병원입원까지 이르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백신의 효능을 입증한 거라고 지적했다. 프로빈스타운 관계자

보스톤 집값 최고가 경신 매물 증가세는 확연

단독주택, 콘도 가격 최고기록 경신
매물 증가해 셀러스마켓 점차 완화
그러나 올 가을까지 집값상승 계속 전망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6월 그레이터 보스톤 집값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점차 과거의 뜨거운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 (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6월 집값은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난해 6월에 비해 19% 상승한 \$811,000이었으며 콘도가격은 9% 상승한 \$643,750이었다.

이 수치는 모두 사상 최고가였다. 그러나 높은 집값으로 인해 매물이 점차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은 오피 전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외에 쪼뼛 넓은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낮은 이자율이 맞물리면서 한 집에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2021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캐나다 백신 접종 미국인 8월 9일부터 입국허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캐나다가 8월 9일부터 미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의 모든 국가들에게는 9월 7일부터 입국을 허용한다.

캐나다는 미국발 여행객들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14일간의 격리의무를 면제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와 함께 동행할 경우 격리를 면제하며 다만 단체 액티비티에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트루도 총리는 지난 주 캐나다가 백신 접종이 완료된 미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8월 중순부터 허용하고 여타 국가의 여행객들도 9월초부터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루도 총리는 세계 G20국가중 캐나다가 백신 접종율에서 선두를 달

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8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5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해 미국을 앞질렀다.

캐나다는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이 완료된 캐나다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격리없이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국전 음성판정과 입국후 음성판정 결과를 의무화했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75%의 캐나다 국민들의 접종을 완료될 때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나다는 현재 첫 백신 접종율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7월 말이면 이들의 두번째 접종까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중안전부 빌 블레이 장관은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캐나다 여행객들에게도 입국을 허용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음성판정을 받은 캐나다 여행객의 경우 항공노선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조치에 상호주의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현재 계속해서 여행 제안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제 조치는 공중안전 또는 의료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결코 상호주의에 입각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 여행협회는 국경봉쇄로 매달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는 2019년 2천 2백만 여행객들이 방문했으며 약 1천 5백만이 미국 여행객들이었다고 밝혔다.

<해녀> 뉴베드포드에서 미국과 만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제주 해녀의 일상이 담긴 사진이 올 여름 매사추세츠 남쪽의 항구 뉴베드포드에 전시된다.

김형선 작가가 제주지역 해녀들의 일상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뉴베드포드에서 6월 중순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시되는 매사추세츠 디자인 아트 테크놀로지(DATMA)가 주최하는 전시전 “WATER 2021”에 참가했다.

DATMA의 “WATER 2021”은 예술 전시회로 바다와 관련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 영국, 스위스 그리고 매사추세츠 사우스코스트 지역 여성들의 역사, 경제 문화적 역할을 조명하는 대중 예술 프로젝트다.

김형선 작가를 비롯해 필 멜로, 크레익 이스턴, 그리고 지몬까지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 사진전은 모든 연령의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전시회와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수칙에 의해 진행된다. 주차는 뉴베드포드 스테이트피어(New Bedford State Pier) 옆 주차



김형선 작가의 해녀

장에 하면 된다.

자세한 전시회 정보는 <https://datma.org/water/>에서 확인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코로나 치료의사, "백신 원하는 환자들 구걸할 때는 너무 늦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이야기 페이스북에 올려 백신 권장 앨라바마 학교 개학은 코로나 폭증의 시작될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신을 맞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했던 한 앨라바마 의사가 "지금은 늦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늦었을 수도 있다"며 백신접종을 권장해 화제다.

보스톤글로브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버밍햄의 그랜드뷰 메디컬센터 전문의 브리트니 코비아 박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병원에서 목격했던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경험을 올렸으며 이것이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코비아 박사는 "최근들어 건강한 젊은이들이 중증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하고 있다"며 "산소호흡기를 달기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백신접종을 구걸할 때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 한다"고 경험담을 올렸다.

메이요 클리닉의 통계에 따르면 앨라바마는 33.7%의 백신 접종율로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접종율을 기록

하고 있는 주다. 최근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과거와 달리 젊은층에게 훨씬 더 감염을 강하게 일으키자 감염자 수와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백신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환자수가 급증하자 "비백신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고 칭하고 있을 정도다. 앨라바마 주는 병원입원 환자중 사망자의 94%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발표했다.

백신접종을 뚫고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자들의 병원입원이나 사망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델타변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이 증명됐으며 존슨앤존슨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21일 밝혀졌다.

코비아 박사는 현지 지역신문 'AL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한 환자

를 제외하고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신 환자들은 약간의 산소호흡만 필요했고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당수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망을 알릴 때 그들의 가족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이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은 가서 백신을 맞고 모든 이에게 같은 일을 하라'고 권장하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울면서 몰랐다고 한다. 코로나를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특정한 혈액형이나 피부색을 가졌다면 많이 아프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들은 '그저 독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돌이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전했다.

코비아 박사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처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그들이



버밍햄의 그랜드뷰 메디컬센터 전문의 브리트니 코비아 박사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마음 아파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환자를 접하면 모든 생각이 바뀐다. 왜냐면 그들이 가진 정보로 나름의 최선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비아 박사는 지금의 델타변이 유행이 지난 10월 11월 코로나바이러스가 절정을 이뤘을 때를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하루에 10개의 사망증명서에 서명을 했다

"고 밝혔다.

코비아 박사는 다가오는 개학 즈음에 이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 폭증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마스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70% 앨라바마 주민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접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다가올 종말이라고 느껴진다"고 그는 표현했다.

hsb@bsot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재미 4.3기념 사업회 유족회 보스턴서 첫 출발

7년간 워싱턴 준비위 활동이후 보스턴에서 출범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재미 4.3기념회 사업회 유족회가 16일 보스턴에서 미주내 처음으로 출범했다.

줌(Zoom)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발의했던 오영훈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보스턴에서는 이현우 부총영사,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재미 4.3기념사업회 유족회는 워싱턴에서 7년여간의 준비위 활동을 기반으로 보스턴에서 4.3유족인 언론인 양수연씨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이번에 출범했다. 부회장은 워싱턴의 4.3유족회 준비위원장인 한의 사양영준 씨가, 사무총장은 존스홉킨스대학 박사과정 김유정 씨가 맡았다.

특히 올해 초 여야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족 보상 등 국내에서 4.3피해자 명예회복이 궤도를 찾은 가운데 재미 4.3기념회 사업회 유족회의 출범은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수연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국을 떠난지 오래됐지만 우리 4.3 유족들은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도 4.3을 결코 잊지 못한다.”면서 미국에서 4.3유족을 중심으로 기념사업회가 운영될 것임을 설명했다.

양 회장은 10월에 나올 영문 저널과 포럼에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으며 미국 주요 도시에 4.3기념비를 추진하는 등 “미국이 사과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4.3을 이야기하고 동백꽃뱃지를 달고 있다. 세계에 4.3의 진실을 알리고 정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재미 4.3기념회 사업회 유족회가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오영훈 의원은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해”라며 2022년 정

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작업이 끝나면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뜻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힘을 보탤

제주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도 “미국의 책임을 묻고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일”이라며 미국에서의 4.3파우의 역할을 기대했다.

제주 4.3평화재단의 양조훈 이사장도 “4.3사건이 미군정 시절에 발생했고 진압 과정에서 미군사 고문단이 음모로 양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미국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이번에 출범한 재미 4.3기념 사업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월든 코리아 청년 기획위원들이 소개됐다. 월든 코리아는 재미 4.3기념회 사업회 유족회가 4.3국제 포럼, 세미나 및 영문 저널을 수행하기 위한 4.3알리기 플랫폼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선발한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월든 코리아는 기념사업회의 4.3을 미국에



알릴 장기 사업으로 이날 주목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희대 이택광 교수와 미국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재미 제주 4.3기념사업회 유족회는 이민자 4.3유족들을 찾고 4.3진상 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재미 제주 4.3기념사업회 유족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43jeju.com과 이들의 사업 페이지인 월든 코리아(walden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유족 문의 등은 walden43korea@gmail.com 또는 양수연 회장(857-540-6032)로 하면 된다.

다.

제주 4.3사건은 미군정 치하였던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부터 10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무장대 1,500여명을 제외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3만 여명에 달하는 6.25이후 최대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의 비극이다.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된 뒤, 4.3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아 공식 사과했고 올해 초엔 여야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J2K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	--	---

*전상품 1년 약정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총 13개 Live방송중

연립뉴스TV M1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델타변이 감염 프로빈스타운 확진자 대부분 백신 접종자

▶▶1면에 이어서
 는 19일 7월 1일부터 16일까지 132명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으며 이중 대다수가 백신접종자였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세만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20일 총 2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두배에 가까운 숫자를 발표했다. 이중 190명은 매사추세츠 주민이며 나머지는 외부 여행객들이었다.

윌리엄 해니지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 감염병학과 조교수는 “비록 백신접종률이 높은 지역이라 해도 델타변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며 “여기 매사추세츠에서는 이제 델타변이 감염 대유행의 바로 시작점에 있다는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프로빈스타운은 19일 공중보건 권고를 통해 백신 접종자 및 비접종자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밀접도가 높은 사업체의 경우 백신 접종을 요구토록 했다.

카산드라 피에르 BU메디칼센터 감염학과 조교수는 프로빈스타운의 조치가 비 백신접종자들의 전파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밝혔다.

피에르 박사는 “백신을 맞지 않

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밀접도가 높은 실내에서 잠재적인 감염 노출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은 늘 우려스러운 상태” 였다고 말하고 “백신 접종자 및 비접종자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고 밝혔다.

프로빈스타운 보건 관계자는 “이번 집단 감염이 한명의 수퍼 전파자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32개 다른 사업체에서의 감염이 발생했다.” 고 말하고 “델타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바로 다음 손님에게 감염됐다” 고 델타변이가 원인임을 암시했다.

매사추세츠의 대표 휴양지 케이프코드에 위치한 프로빈스타운은 동성커플들이 많으며 여름 관광지로 유명하다. 특히 여름철 휴가인파들로 넘치는 곳이다. 타운 매니저 알렉스 모스는 여름에 3천이던 인구가 6만명으로 불어난다고 밝혔다.

브리감앤위먼스(at 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감염병임상과장 폴 삭스 박사는 백신이 중증과 입원 등을 막기는 하지만 100% 감염을 막아내는 것은 아니라며 실내 밀접모임 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GH 감염질환임상연구과 마크 시드너 박사는 “프로빈스타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 라고 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끝난 게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고 강조했다.

미국내 전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 모였으며 이 가운데 델타변이가 침투한 모든 요소의 결합이 결국 집단발병을 불렀다는 것이 시드너 박사의 지적이다.

레히호스피털의 로버트 던컨 감염질환의는 “프로빈스타운의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에 따르면 21일 총 45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667341명이었으며 사망자는 2명이 발생 누적 사망자는 17667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사망자 수는 백신접종이 활발해지던 5월 하순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19일 신규확진자 717으로 폭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말을 거치긴 했지만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무섭다.

주보건부에 따르면 19일 3일만에 발표된 신규확진자는 717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부는 7월 들어 주중에만 코로나 관련지수를 발표하고 주말에는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19일 누적확진자는 666,518명이며 누적사망자는 17,66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106명으로 늘었다. 7일평균 양성확진율은 1.04%로 불과 3주전 0.32%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신규확진자는 여전히 활동이 많은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많았다. 19세 미만의 경우 255명, 30대 미만이 238명, 40대 미만이 199명 순으로 감염됐다. 50대 미만은 148명이었고 60대 미만은 156명이었다.

매사추세츠 19일 현재 1차 백신접종자는 4백76만7천29명으로 총 69.2%이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는 4백30만3천342명으로 62.4%에 달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보건관계자를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 전체 백신 접종은 반대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 부딪쳐 5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09 - 2019 data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다!

면역력 재충전

우리 경제가 다시 열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가지! 정관장으로 면역력 재충전!



홍삼정 240g +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자녀용 제품 할인
1개 구입시 5%
2개 구입시 10%
3개 구입시 15%
+아이키커 증정



정관장 면역력 재충전 이벤트!

행사기간: 7월 16일 - 8월 8일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데드햄에서 고등학교 졸업파티를 연 자녀들에게 음주를 허용하고 한 파티 참석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겪은 전직 경찰 부부가 21일 기소됐다

은퇴한 경찰, 미성년 자녀 음주파티 허용했다 기소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데드햄에서 고등학교 졸업파티를 열고 자녀들에게 음주를 허용한 전직 경찰 부부가 21일 기소됐다. 파티에 참석한 한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불렀기 때문이다.

데드햄지방법원 살바토르 패터나 판사는 경범죄로 기소된 제임스 커플린 은퇴주경찰형사과장(55)과 아내 레슬리 커플린(54)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 기소인정여부절차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졸업파티를 연 커플린 부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허용하면서 었나가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이들 졸업생들은 수영을 못하는 알폰조 포크를 수영장에 밀어

넣었고 결국 포크를 익사하도록 만들었다.

포크는 6월 5일 밤 12시께 수영장에서 구출돼 CPR을 받았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인 6월 10일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전 12시 30분께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몇몇 술취한 고등학생들과 많은 빈 맥주캔”을 발견했다. 또한 4명의 미성년 고등학생들이 집안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커플린 부부가 이들이 술을 마실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기소했다.

또한 경찰은 수영장의 깊은 곳에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도

동시에 적용했다.

커플린 부부를 변호하는 브라이언 켈리 변호사는 포크의 죽음이 “엄청 난 비극”이지만 결코 범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는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말 상심이 크다. 그렇지만 모든 사고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크가 수영장에 빠졌을 때 어른들이 여전히 뒷뜰에 있었다며 그가 17세에서 6월 17일 18세가 되는 나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코 어린 아이를 수영장 옆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포크의 가족은 포크의 죽음에 정의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BOSTON RESIDENTS WHO RECENTLY VISITED PROVINCETOWN URGED TO GET COVID-19 TEST



보스톤시, 프로빈스타운 방문했으면 격리, 검사 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7월 1일 이후 케이프코드 프로빈스타운을 방문한 모든 보스톤 주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음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프로빈스타운을 방문한 경우 5일 이내에 감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5일간 격리하라고 권장했다.

보스톤시는 최근 최소 35명의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확진자들이 프로빈스타운을 방문한 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프로빈스타운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자 모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프로빈스타운을 방문했거나 거주한 주민들 중 지난 7월 4일 이후 최소 100명이 양성확진을 받았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오리건주 산불, 보스톤 및 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기록적 폭염·가뭄 속 '부트레그 화재', 서울 2.6배 면적 불타
주택 67채 전소·2천명 대피...동부 도시들 미세먼지 지수 급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미국 서부 오리건주(州)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서울의 2.6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미국 연방산림청(USFS)이 운영하는 재난 정보 사이트 '인치웹'을 인용해 오리건주 남쪽에서 발생한 산불 '부트레그 화재'가 20일(현지시간)까지 38만8천359에이커(약 1천571km²)를 태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 면적(605.21km²)의 2.6배에 달하는 것이자, 광역 로스앤젤레스(LA)보다도 더 넓다고 CNN은 전했다.

부트레그 화재는 지난 6일 오리건주 남부의 베이티에서 미 서부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다. 소방관 2천250명이 투입돼 진화 중이지만 진화율은 아직 30%에 그친다.

기록적인 가뭄에 폭염이 겹친 가운데 발생한 부트레그부 화재는 오리건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산불 8건 중 하나다. 소실 면적 기준으로 오리건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다.

이 산불로 2천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 67채가 전소했다. 창고나 주차장 등 부속건물도 11채가 불탔다.

지난 13일간 평균적으로 시간당 거의 1천100에이커를 태웠는데 이는 45분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규모를 집어삼킨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오리건주 산림국의 마커스 커퍼먼은 "이 화재는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에

너지와 열을 생성하면서 날씨를 바꾸고 있다"며 "보통은 날씨가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에는 화재가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에 말했다.

부트레그 화재로 바람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는가 하면 불꽃을 멀리까지 실어나르는 바람을 생성해 화재가 더 빨리, 멀리까지 번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의 규모가 커진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록적 가뭄에 이례적인 초여름의 폭염, 여기에 눈 가뭄 등이 겹치면서 화재가 견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CNN은 "기후 변화가 더 치명적이고 더 파괴적인 산불을 '뉴노멀'(새로운 정상)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서부에서는 부트레그 화재 외에도 13개 주에서 모두 80건의 대형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 화재들로 발생한 연기가 이례적으로 연기 기둥을 형성한 뒤 고(高)고도에서 부는 바람에 실려 동부 해안까지 수천 마일을 날아가고 있다.

서부에서 시작한 대규모 화재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 동부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짙은 연기가 서부에서는 공기 질을 위협하게 하고 중서부와 북동부의 하늘까지 괴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대호와 동부 해안에는 20일 아침 안개가 걷힌 뒤에도 산불로 생긴 짙은 연무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햇빛을 구경하기 힘

들었다.

국립기상청 뉴욕 사무실은 "오늘 아침 하늘은 맑은데도 높이 떠 있는 짙은 연기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사무실에서 일출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지역에는 연기가 지상까지 내려오면서 공기 질 경보가 발령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회색 연기가 뒤덮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도를 측정하는 대기질지수(AQI)는 뉴욕 170, 필라델피아는 172에 달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보다는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스톤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인 150을 넘었다.

주민들에게는 공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또한 캐나다 매니토바와 온타리오 산불에서 연기가 떠나려오면서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의 AQI가 민감한 개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인 125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전국합동화재센터의 기상학자인 닉 노슬러는 추정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은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까지 연기를 떠밀어 보내고 있다.

다만 21일에는 한랭전선이 연기를 밀어내며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sisyphe@yna.co.kr



미 서부 산불서 발생한 연기로 뿌옇게 변한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

미국 산불 연기, 코로나19 감염 늘려 생각보다 더 위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미국 서부 산불이 뽑아내는 연기가 동부 뉴욕까지 퍼진 가운데 산불 연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현지시간)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산불 연기가 코로나19 감염자를 늘린다면서 "산불 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네바다주 사막연구소(DRI)가 환경 전염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 연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형 산불 3개가 맹위를 떨친 작년 8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리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3만6천명을 조사한 결과, 산불 연기의 미세 물질 증가가 코로나 환자를 18% 늘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산불 연기가 인체 면역 반응 변화를 초래했거나 호흡기 세포의 과민 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산불 연기 미세 물질에 달라붙어 인체에 더욱 쉽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산불이 건물과 자동차, 플라스틱 등을 함께 태우면서 뽑아내는 화학물질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손상된 인체 호흡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위원회는 2018년 최소 85명의 사망자를 냈던 '캠프' 산불 연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산불은 건물 1만9천개를 태우면서 납, 아연 등의 화학물질을 함께 뽑아냈고 인근 주거지에선 대기의 납 함유량이 정상치의 50배에 달했다.

연구를 이끈 마이클 벤저민 국장은 납은 혈압과 생식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암과 신경학적 장애와도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불 연기와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호흡기 면역이 손상된 코로나 환자들은 산불 연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집값 최고점 찍나..매물 증가세 확산

▶▶1면에 이어서

수십명의 바이어들이 몰려드는 극심한 셀러스마켓을 형성해왔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교외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집값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 판매량도 지난해 팬데믹으로 급격한 감소를 겪었던 침체에서 벗어나 20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단독주택의 판매량은 2019년에 비해 14% 증가했으며 콘도의 경우 27%나 늘었다.

디노 콘팔론(Dino Confalone) GBAR 회장은 "지난 봄은 역대급이었으며 이보다 더 뜨거운 시장은 없었다."고 말하고 "교통체증이 시작되면서 바이어들은 눈속에서 한 시간이 나 기다려 오피하우스에 들어갔으며, 6월은 최고가를 기록한 보스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바쁜 달이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는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에 그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전체에서 집값과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집값을 추적하는 워렌그룹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6월 \$555,000로 지난해 6월에 비해 26.1%가 상승했다. 특히 단독주택 중간가는 매사추세츠 14 카운티 중 13 카운티에서 최고 15%가 상승해 매사추세츠 전역의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

워렌 그룹은 이 같은 가격상승의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팀 워렌 대표는 "지난 봄마켓에서 판매가 합의된 집들은 일반적으로

6월에 모두 클로징된다. 6월의 클로징된 매매는 2021년이 얼마나 과거와 다른 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주택 수요, 기록적인 이자율, 매물부족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중간가격은 올여름과 가을 계속 기록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콘도 가격도 \$489,000로 지난해에 비해 22.1%나 폭등했다. 지난해 팬데믹이 휩쓸며 일부 침체됐던 콘도 경기가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다.

워렌 대표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심의 콘도마켓은 지난해 커다란 타격을 입은 후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미 소아학회, 모든 학생들 마스크 착용 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미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19일 2살 이상의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백신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AAP의 새로운 지침은 2주전 CDC가 2세 이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으로 개정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AAP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을 때 학교내 전염율은 아주 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의 혜택은 모든 환경에서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대면수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아학회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학기 대부분의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학교들에게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시켰다. 텍사스에서는 학교는 심지어 학부모 및 방문자들도 마스크 의무화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매사추세츠주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며 주지사는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워싱턴 주는 백신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AAP는 지침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만 마스크를 착용케하고 백신 접종상태를 확인하는 일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모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장했다.

현재 CDC의 통계에 따르면 16-17세의 38%가 백신을 접종했고 12-15세의 26%가 백신을 접종했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매일 편안하게 누워서 15분 요가, 꿀잠 보장!

요가는 하루중 언제하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 주저없이 '지금' 입니다.

내 몸이 힐링을 원할 때 요가가 떠오르고 그때 그때 바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사실상 바쁜 일상에서 그런 짬을 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주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이브닝 요가 시퀀스를 준비했어요. 매일 자기전에 부담없이 '누워서' 하는 동작들로 이루어졌으니 꼭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영상 밑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직 제 한국어채널 구독 안하셨다면,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꼭 구독하시고 알림설정도 하셔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요가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배울 동작들은 최근 영상 중 '꿀잠 부르는 요가 스트레칭' 를 찾아해보시면 돼요.

첫번째로 배울 자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허벅지뻗기, 허리통증완화) 입니다.

STEP 1. 등을 대고 누워 한다리를 바닥에 놓고 다른 다리를 천정 위로 올립니다.

STEP 2. 두손을 올린 다리 뒷면에 깎지끼고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겨주세요.

POINT! 처음부터 다리가 잘 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호흡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STEP 3. 깊은호흡으로 3-5회 반복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두번째 자세는 브릿지 자세 (힙, 코어, 허벅지 앞과 안) 입니다.

STEP 1. 누운 상태에서 두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STEP 2. 조심스레 엉덩이를 들어올리며 복부를 등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며 엉덩이를 중



양으로 살짝 모아줍니다.

POINT! 날개뼈를 조이면 가슴이 더 열리고 두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STEP 3. 브릿지자세에서 흘딩하셔도 좋고 영상과 같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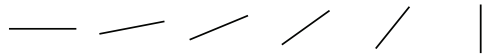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페이스북 가짜 백신정보 콘텐츠 방치, 유통

2년 전 '백신 허위정보와 싸우겠다' 공언에도 인스타그램에는 그대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에서 '#백신이 (사람을) 죽인다'는 해시태그를 차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백신 반대 콘텐츠를 발견한 뒤 이 회사에 문의하자 페이스북이 관련 콘텐츠를 차단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해시태그로 검색한 게시물 중에는 '백신은 말 그대로 사람의 두뇌를 먹는 다라거나' '어둠의 세력이 인구감소 계획을 가동했다'라고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있었다. 또 '백신을 맞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당신 몸속에 주입된다라거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게 하라'는 경고까지 다양하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나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 진행자 앨리스 존스의 동영상도 첨부돼 있었다.

권위 있는 뉴스 출처인 것처럼 포장된 웹사이트에 올라온 반(反)백신 기사를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CNN은 이 해시태그가 특별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백신이 죽인다'는 문구를 퍼뜨리기 위해 이를 쓴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백신이 죽인다"가 달린 게시물은 잠정적으로 차단됐다"며 "이 게시물의 일부 콘텐츠는 우리의 커뮤니티 기준에 어긋난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CNN은 "지난주 백악관으로부터 허위 백신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은 '#백신이 죽인다'를 막는 간단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페이스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악관이 비판을 제기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진의 책임을 페이스북에 묻는 손가락질을 멈추라고도 했다.

가이 로즌 페이스북 부사장은 블로그에 "페이스북이 이 목표(7월 4일까지 성인의 70%에게 백신을 최소 1회 맞힌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를 놓친 이유는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가 퍼지는 것을 방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익명의 페이스북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백신 접종률 목표 달성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페이스북은 전에도 비슷한 과실을 저지른 적이 있다.

2년 전인 2019년 2월에도 뉴욕에서 홍역이 발생한 뒤 "우리 플랫폼 등에서 백신 허위정보와 싸우겠다"

"고 공언했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인스타그램에 백신 반대 계정에서 올라온 게시물들이 그대로 방치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sisyphe@yna.co.kr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NOW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2018년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에서 한 관람객이 엑소스켈레트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외골격 보행보조 로봇을 시연해보고 있다.

외골격로봇, 뇌 부담 가중해 근육부상 초래할 수도

미국 연구팀, 외골격로봇 사용 시 뇌활동·허리근육 부담 측정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무거운 짐을 드는 작업 등을 할 때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용하는 외골격로봇(exoskeletons)이 뇌에 근육조절 등의 부담을 높이며 오�히려 근육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척추연구소 윌리엄 마라스 교수팀은 22일 국제 학술지 '응용 인체공학'(Applied Ergonomics)에서 외골격로봇 사용이 뇌 기능의 일부를 점유해 외골격로봇이 주는 이점이 감쇄되고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할 때 외골격로봇을 착용한 사람은 그 동작에 대해 생각

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뇌는 추가로 일을 하게 되고 몸은 외골격로봇과 조화롭게 일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된다며 이는 외골격로봇이 이점을 상쇄할 만큼 큰 부담을 뇌에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외골격로봇은 아이언맨 슈트처럼 겉에 입는 형태의 로봇으로, 공장이 나 창고 등에서 무거운 장비나 부품을 다루는 노동자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며, 신체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비로도 개발되고 있다. 연구팀은 남녀 각각 6명을 대상으로 한번은 허리와 다리에 근육을 보호하고 부상을 줄여주는 외골격로봇을 착용한 채, 또 한번은 맨몸으로 무거운 운동용 볼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게 하는 실험을 하면서 기능성

근적외선분광기(fNIRS)로 뇌 활동을 관찰하고 허리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했다. 또 한 차례의 실험에서는 외골격로봇 착용 상태에서 무작위로 500~1천 숫자를 주고 13을 빼는 계산을 하면서 볼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게 하면서 뇌 활동과 허리 근육의 부담을 관찰했다. 그 결과 외골격로봇을 착용한 채 볼을 들어 올렸나 내리는 운동을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머릿속으로 뻘뻘을 하면서 같은 동작을 할 때는 허리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스 교수는 외골격로봇 착용

자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경우는 없겠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는 업무 중 지시 같은 정신적 부담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뇌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뇌는 뻘뻘을 하는 동시에 외골격로봇이 신체와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뇌 자원 활용에 경쟁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뇌 기능이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몸 근육이 외골격로봇의 움직임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에서 뇌 활동에 변화가 생기면서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는 통증과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라스 교수는 "기업에서 외골격로봇에 수십만 달러를 쓰는 경우, 그것이 직원들에게 전혀 좋은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외골격로봇을 사용할 때는 작업에 수반되는 사항을 이해하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수리 편해질까...FTC 고쳐쓸 권리 확대 논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고장이 난 아이폰을 꼭 애플 수리 매장에서만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을 수리할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미 윌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외부 업체 수리에 대한 부담하고 반경쟁적인 제한 조치를 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FTC는 제조사들이 외부 업체에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리를 어렵게 제품을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고쳐 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이런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고 혁신이 저해되고 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 소비자 단체나 외부 수리 전문업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애플 등 IT회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 이번 FTC 정책과 관련해 제3자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기 안전과 보안이 위협해지고 데이터 탈취도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FTC는 올해 초 '독립 수리점'이 고객 정보를 손상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저널은 앞으로 FTC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수년이 걸리고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거리

코로나 확진자 2주 새 2.7배로 늘어 ...어린이 환자도 증가

보건전문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복원하는 등 팬데믹 대응 되돌려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의 비중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7천55명으로 1주 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또 2주 전의 평균 확진자 1만3천665명과 견주면 2.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염 확산 속에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지난 8~15일 2만3천550여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됐는데 이는 6

월 말과 견줘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감염자도 미국의 전체적인 확진자 추이를 따라 몇 달간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이런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개학을 몇 주 앞두고 나타났다.

피터 호테즈 베일리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서 어린이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며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사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백신을 임상시험 중이지만 올해 연

말이 돼야 긴급사용 승인이 날 것 같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최근 밝혔다.

또 화이자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가 9월쯤 나오면 같은 달 중미 식품의약품(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하는 갱신안에 서명했다. 몇몇 주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특히 우려스러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8%인 9천100만여 명이 코로나19 전과가 높은 카운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새로 재설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마스크를 벗기로 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리아나 웬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교수는 "우리는 한 달 전과 크게 다른 지점에 있다"며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선례를 따라 백신 접종자와 미(未)접종자가 섞여 있는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기업체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은 확대 중이다.

뉴욕시의 병원·진료소는 8월부터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애리조나주의 최대 민간 사업장인 비영리 의료서비스 기구 배너헬스도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배너헬스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의무화의 이유로 들며 "제한적 예외를 빼고는 모든 팀 구성원들은 11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미 신규 실업수당 41만9천건 예상밖 깜짝 증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11~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5만1천 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40만 건대로 복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 복귀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업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5만 건이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실업수

당 청구 건수의 깜짝 증가에 대해 "고용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달에도 고용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9천 건 감소한 32만6천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다.

경제 상황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후 긴급 현금 지원을 축소하는 주정부가 늘어난 것이 실업자들의 구직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회복 중인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oman@yna.co.kr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정치선배' 이준석이尹에 건넨 '훈수'... "대중 속으로 가라"

‘부의 대중 정치’ 모델 제시... "제대로 된 사람들과 일해야" '8·15전' 차사면 이야기 나와... 장외주자들, 그 전 입당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범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 "좋은 조력을 받으면 지금보다 나은 위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제대로 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바로 보완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본인이 윤 전 총장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지방 일정을 할 때 최대한 대중과 소통하는 일정을 잡으시라"고 조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대중 정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인지도가 낮고 대중 동원 능력이 없어서 행사·단체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은) 30%가 넘

는 지지율을 경험해봤으면 대중 속으로 본인의 몸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중 정치'의 성공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보면 손 흔들고 인사하고 마이크 잡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을 다 했다"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정치적인 행보 등 다른 것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으로 영입된 '박근혜 키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전 총장의 공공 지지율이 오하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압축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행보를 하는데 지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좀 남은 상황에서 최근에 위기감이 대두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30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최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위험하다"고 공개 지적한 것과 관련, 일종의 부연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장외 주

자들의 입당 시기에 관해서는 "호사가 들에 따르면 8월 15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한동안 그 이슈가 (정국을) 주도할 텐데, 그 전에 입

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고 내다봤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minaryo@yna.co.kr

"차기 적합도... 이재명 27% 윤석열 19% 이낙연 14%"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과 2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백명을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1% 포인트 오른 27%, 윤 전 총장은 1% 포인트 하락한 19%를 각각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20% 선이 무너진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와 동일한 14%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추미애 전 법무장관·유승민 전 의원(2%) 등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지사(46%)가 윤 전 총장

(33%)을 앞섰다. 2주 전 조사(이재명 43% vs 윤석열 33%)에서보다 그 격차가 커졌다.

여권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는 경우에도 이 전 대표(42%)가 윤 전 총장(3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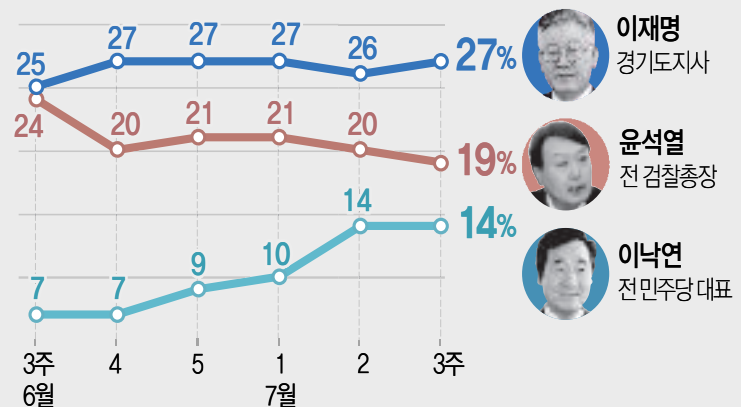
진보 진영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지사 33%, 이낙연 전 대표 18%, 박용진 의원 4%, 추미애 전 장관·심상정 의원 3%였다.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총장 22%, 홍준표 의원·유승민 전 의원 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최재형 전 감사원장 6% 순이었다.

한편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49%)와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48%)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첨진 기자 / 2021072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 SMART CARD —
SAVE EVEN MORE!



To Get More Out of Each Visit,
 It's Always Smart to Remember Your Card.
오늘부터 H 마트 스마트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p>스마트카드 발급 Register for a Smart Card</p>	<p>카드 스캔 후 포인트 적립 Scan the Card & Earn H Mart points</p>	<p>포인트 확인 후 상품권 교환 Check & Redeem your points for gift certificates!</p>
--	---	---

- H 마트 앱 또는 H 마트 매장 고객센터에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구매 시 1포인트가 적립됩니다. 1,000포인트 적립 시, H 마트 \$10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각 매장 고객센터에서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H 마트 매장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 및 혜택은 스마트카드 회원님들께 우선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 Register on the H Mart app or H Mart in-store Customer Service Center.
- For every \$1 you spend, receive 1 point. 1,000 points = \$10 H Mart gift certificate!
- Redeem in stores 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 Exclusive sale prices and benefits given to Smart Card members only.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 제 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 희 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 수 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2 베드 콘도 렌트

Highly Desirable North Waltham/ Lexington Line Walk to shopping Plaza
파킹 1

Asking 월 \$2,000(렌트)



● 싱글 패밀리 하우스 매매

North Andover

Asking \$95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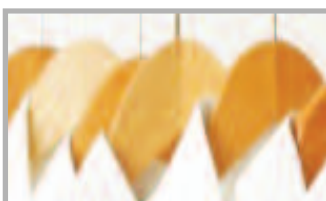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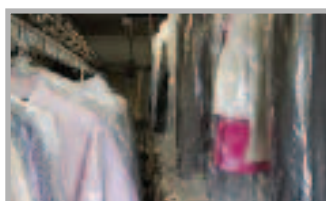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대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식당매매

높은 매상으로 수익보장, 팀워크는 직원들로 구성
식당 무경험자도 쉽게 운영가능
K-food 인기로 향후 매출증가 기대

Asking \$280,000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력,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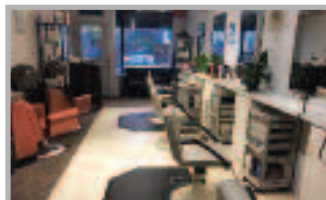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Price Reduced
급매 Asking \$40,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급매 원함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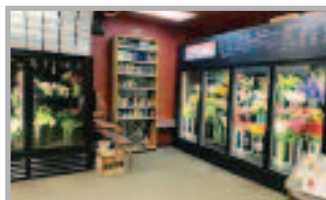
Asking \$320,000



●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드랍스토어

보스톤에서 30분거리 Haverhill
손쉬운 운영, 저렴한 렌트비
문의바람 978-494-2043

Price Reduced
급매 Asking \$30,000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Price Reduced
Asking \$80,000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

유득공은 1748년에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 출신으로 태어났다.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출신 성분 한가지만으로 그가 앞으로 격어야 할 불우한 생애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20여세때 박지원, 이덕무와 함께 개성과 평양, 그리고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를 다녀 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유람이 토대가 되어 위만 조선부터 고려때까지의 역사를 주제로 한 21 도회고시(都懷古詩)가 만들어졌다. 유득공 같은 사람은 항상 우리 역사를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유득공은 평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영향을 받아 북방사에 관심이 많았고 발해가 망한 후에 발해와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한탄하였다.

유득공이 31세가 되었을때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창설하였는데 남인 가운데에서 체제공을 규장각 제학으로 발탁하고 재주있는 서자 출신들을 시험을 쳐서 선발하였는데 당시 실학과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가 뽑히게 되었다.

검서관은 일정한 녹봉은 없었지만 편찬이나 교정 등의 업무가 끝나면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유득공은 사서삼경, 동방 인물고, 흥제전서 등 많은 책을 간행한 공을 인정받아 1799년에는 박제가와 함께 영규장각 검서관이 되었고 포천현감을 거쳐 가평군수, 양주군수 등을 지내게 되었다.

유득공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두번에 걸쳐 북경을 다녀왔고 심양을 한번 다녀왔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중국학자들과 만나 역사, 지리, 풍속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게 되었다.

그는 중국을 다녀 오면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일어난 고구려와 발해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되어 "발해고"를 집필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그가 발해고 서문을 쓴 동기를 밝혔다. 고려가 발해를 쓰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고려의 국격이 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은 마땅히 남북의 역사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무릇 대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으로 동, 서, 북을 개척하여 이보다 더 넓었던 것이다. 고려는 남쪽의 신라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북쪽의 발해를 계승했는데, 고려가 마음먹고 발해를 편찬하려고 했다면 고려로 투항한 발해인을 상대로 역사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 사람 장건장은

발해에 사신으로 잠시 왔다가고서도 발해국기 3권을 썼는데 정작 고려인은 왜 발해사를 쓰지 않았는지를 유득공은 지적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득공은 신라와 발해는 "남북국 시대"라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의 두나라를 이미 수백년전에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유득공이 "발해고"를 저술하기 이전에 발해사는 중국의 정사나 일부 문인들의 문집, 고려시대의 삼국사기, 제왕운기, 동국통감 등에 단편적으로 기술되었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대두하여 이익의 성호사설, 이종희의 동사(東史) 등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저술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유득공이 발해고를 저술한 이후에는 조선학계에서는 발해의 역사를 한국사의 범주에서 연구 분석하려는 풍토가 정약용, 한치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그의 발해고는 1천년간 사학자들이 암묵간 이복을 베어버린 결함을 보충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장건장의 발해국기

장건장(806-866)은 당나라 관리로 "발해국기"를 쓴 사람이었다. 당나라 효종절도사 밑에서 요동, 요서의 해나라와 거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사로 유주의 관사를 겸하고 있었다. 서기 833년에는 발해에 머물렀는데 834년 당나라로 귀국한 후에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책으로 써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발해국기"였다. 발해 견문록으로 발해의 풍속, 관품, 궁전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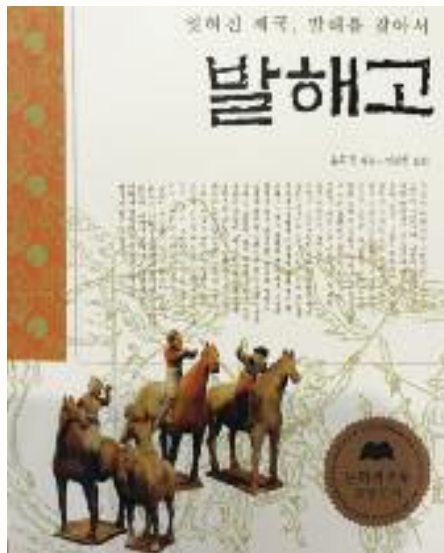
그러나 신당서, 송사, 예문락 등에 이책의 이름과 인용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이책을 근거로 발해 역대 군왕의 시호, 지리, 물산, 교통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쉬운 점은 이책의 편찬 시기가 발해 11대 대이진왕 시절이라 10대 선왕까지의 시호만 확인되어 있고 그 이후의 왕은 시호조차 알 수가 없다. 1980년대 초반 중국 시안에서 장건장의 묘비를 발견했다.

정강(靖康)의 변과 송막기문(松漠紀聞)

북송의 마지막 황제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이 1126년에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사로잡혀 끌려간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북송이 멸망당하고 휘종의 아들 조구가 임안(현재의 항주)으로 가서 남송을 세우고 고종으로 즉위한다.

남송의 흥호(洪皓)가 금나라에 과견되어 휘종과 흠종 부자의 석방을 교섭하였는데 일이 틀어져 흥호는 금나라에서 15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가 15년간 보고 들은 것



유득공의 발해고



남골 공원에 살던 유득공, 백담 동인회를 만들다



개혁의 산실 규장각



송 휘종의 부용 금계도



송 휘종의 남매 쌍금도

을 많이 기록하였는데 금나라 것은 물론이고 발해, 위구르, 거란 등의 흥미있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흥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들이 자료를 정리해 미리 말했던 "송막기문"에 이를 소개하였다. 먼저 발해의 풍속만 소개한다.

당시 발해의 사회상은 부인들이 모두 사납고 투기가 심하였다. 다른 성씨와 서로 맺어 10자매를 이루었는데, 번갈아 남편을 감시하여 측실(첩)을 두는 것과 다른 여자와 교류(연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일이 알려지면 반드시 독을 넣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꾀한다. 한 남편이 범한 바가 있어 아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연이 모두 일어나 그를 꾸짖으면서 다투어 증오하는 것을 서로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거란, 여진의 여러나라에는 모두 여창(창녀)이

있고 낭인(일반인)들은 소부(첩), 시종(몸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발해 사람들은 바람피는 일이 없었다.

일부 일처제가 확고한 까닭인지 발해의 무덤에는 부부 합장묘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첩을 둘 수 없었던 발해의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만질을 할 수 없었다. 신라나 중국, 거란, 여진족에게 모두 존재했던 흥등(창녀)들이 발해에는 전혀 없었다. 발해가 계승했다는 고구려에서도 창녀의 일종인 유녀가 있었는데 발해에는 없었다고 한다.

발해에서는 절을 할때 남자는 무릎을 꿇고 하는데 여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의 위세가 아주 강했다는 말이다. 발해 사람 3명이면 호랑이도 잡을 수 있을만큼 용감한 발해 사람이지만 부인에게만은 꼼짝도 못했다고 한다.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최근에 켈리씨의 도움으로 보스턴에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mortgage를 얻는것도 모두 처음이었던 저에게 켈리씨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모든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지만, 켈리씨가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평일, 주말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빠르고 쉽게 대답해주시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 주셔서, 제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융자도 받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모든것이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도 Radius의 안전한 시스템과 켈리씨의 상세한 도움과 설명으로 안전하게 모든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를 구하실때 켈리씨와 같이 일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으실겁니다. - S. Oh



Diana Yeji Kim
Boston Premier Realty
Phone 617.271.2037

최근 부동산 에이전트 다이애나 김의 도움으로 원하던 Bedford 지역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대출도 처음이라 모든게 걱정이었던 저에게, 다이애나씨는 항상 친절하게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말 밀착해서 케어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제가 offer를 했을때, seller와의 negotiation하는데 있어서 다이애나씨의 탁월한 능력과 솜씨가 아니었다면 다른 입찰자들을 제치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제 financial need 에 가장 적합한 loan officer 를 소개시켜주시고 팀으로서 협력해서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셔서 그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애나씨가 늘 구매하는 저의 입장에서 모든걸 생각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일을 같이 하는 내내 신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이애나씨 덕분에 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S. Oh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l16Zd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자신을 보호하면, 타인도 보호합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COVID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하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이재용 · 박근혜 사면론 '술술'...문대통령 결심 주목

이재용에 특사보단 가석방 쪽에 무게...사면시 박근혜만 유력, 국민통합 vs 지지층 이탈...대선정국 영향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거론...깜짝 사면도 가능할까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질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물론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 등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朴입원, 사면 여론 영향줄까...대선정국 흔들 수 있는 카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선 정국을 흔들 카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는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대선주자가 이번 사안의 영향권

안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아권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사면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는 아권의 대선 레이스, 나아가 대권 지각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hysup@yna.co.kr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43) 최고점 주식시장에서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올해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 주식시장은 15% 상승했고 지난 1년은 36%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는 57%나 상승하였다. 여러 미디어는 주식시장 상승을 연일 전한다. 이런 상황에 투자자 마음도 갈광질판해진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Buy Low Sell High)' 인데 최고점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은 물론 사고 나면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다.

여기 세 명의 투자자가 각자 다르게 투자하는 것을 인용해 본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투자(Dollar-Cost Averager) 하는 투자자와 두 번째는 주식시장 최고점에서 투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투자(All-time High Avoider)하고 세 번째는 투자의 도사(God)처럼 주식시장 최저점에서만 투자했다고 가정 한 후 투자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투자 결과는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이 최고점을 피해서 투자한 사람보다 82%나 수익률이 높았고 최저점에서만 투

자한 사람보다는 70% 이상 결과가 좋았다는 연구결과(Of Dollars and Data, Nick Maggiulli)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일반 투자자는 의아해할 수 있다.

꾸준히 투자한 사람이 높은 수익률을 받게 된 이유는 투자로 발생하는 주식배당금(Dividend)과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의 수익률은 주가가 상승만을 계산한다. 특히 특정한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주식 대박을 기대하기에 주식배당금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큰돈이 붙어 나오는 이유는 주식배당금과 투자금이 꾸준히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최고점을 항상 기록한다. 지난 5년을 보면 2016년에는 18번, 2017년 62, 2018년 18, 2019년 35, 2020년 32 그리고 2021년 현재 36번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그때 그 시점이 최고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최고점이 아니다. 지금의 최고점이 얼마 후에는 최저점이 될 수 있다.

투자자 누구나 '내가 투자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투자하는 짧은 시간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주식시장은 분명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 이런 이유로 장기투자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실" 한다고 피델리티에서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며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형성했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Peter Lynch)의 투자 조언이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장기투자해야 수익률이 나온다는 말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기에 투자하기 전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1)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10여년 후 노후자금 마련은 투자 위험성을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은퇴한 후에는 투자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2) 제대로 형성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절대 필요하다. 투자 위험은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분배 해야 한다. 주식은 지난 9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 그리고 채권은 5.5%이다.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투자 위험성은 주식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3)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종목(Sector)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른다. 외국 주식, 미국 주식, 주식에서도 대기업 회사, 작은 회사, 부동산, 등 어느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여기저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채권투자도 주식처럼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붙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1세 풍월주風月主 선품공善品公(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선품은 634년에 풍월주의 위에 올라 4년간 화랑도를 이끌다가 637년에 부제로 데리고 있던 양도良圖에게 그 직위를 물려주고, 이미 상선으로 내성에 들어가 있던 김예원의 천거로 예부에 들어가 벼슬을 하였다. 그러다가 643년 선덕여왕의 명을 받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불행하게도 거기서 병을 얻어 귀국하여 그 해 사망하였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야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자 왕도 슬퍼하며 그의 작을 아찬(6등급)으로 올려주었다.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보통은 자녀 넷을 양육하며 홀로 살았다. 김선품은 장녀 자눌慈訥, 차녀 운명雲明, 삼녀 야명夜明과 외아들 순원順元을 아내 보통에게 맡기고 떠났다. 아마도 그때 막내 순원은 유아였을 개연성이 크다. 화랑세기의 기록에 보면 문명태후가 아이(선원전군仙元殿君)를 낳았고 보통에게 젖을 먹여 줄 것을 청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기록은 없다. 문명태후는 문명왕후, 즉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왕비이자 문무왕 김법민의 어머니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이다. 그런데 김선품이 죽은 해인 643년에는 선덕여왕이 재위 하고 있었다. 김춘추는

654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선원仙元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들(김춘추와 문희)의 아들이란 기록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전군殿君이란 기록이다. 전군은 왕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왕후가 왕이 아닌 남자로 부터 낳은 아들을 일컫는다. 즉 '선원전군'은 문명태후가 남편인 김춘추가 아닌 다른 남자로 부터 선원을 낳았기에 '전군'이란 존호가 붙어있다. 그럼 과연 선원전군은 언제 태어났는가? 무열왕이 사망한 후 일까, 생존시였을까? 무열왕 김춘추는 602년에 태어나서 661년에 사망하였다. 문명태후(문희)는 681년에 사망하였는데 출생년도의 기록이 없다. 다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큰오빠 김유신이 595년생이고 둘째 오빠 흡순이 598년 생이다. 언니 보희와 문희의 출생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들이 세살 터울이라면 문희는 604년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김춘추와 문희는 626년에 장남 문무왕 김법민을 낳았다). 그렇다면 무열왕 김춘추가 661년에 만 5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당시 문명왕후는 57세 가량이었다.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해 봤을 때, 선원전군은 김춘추가 살아있었을 때 문명왕후가 다른 남자로 부터 출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선원의 기록을 보면, 선원仙元이 아찬(6등급)의 관등으로

신문왕 10년(690년) 2월에 원사元師의 후임으로 중시中侍(시중)가 되어 약 2년 6개월간 재임하였고, 그의 후임으로는 원선元宣이 692년 8월에 그 위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다.344) 신라의 시중은 진골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견제하기 위해 진덕여왕 재위시 처음 시행된 관직이다. 초대 죽지竹旨를 비롯하여 13명의 시중이 선원仙元 이전에 재임하였는데 기록의 내용과 문맥, 그리고 그들의 관등을 봤을 때 모두가 고령이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전임 시중에 비해 비교적 낮은 관등으로 시중에 오른 선원仙元이었지만 젊은 나이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선원이 시중에 오를 때 50세라 하여도 640년생이고, 60세라면 630년생이다. 즉 김선품이 사망한 해인 643년에 선원전군이 태어났다면 그는 56세에 아찬의 관직으로 시중에 올랐다. 그렇다면 문명왕후 문희는 왕후가 되기도 전에 이미 김춘추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추론이 형성된다. 그리고 김춘추가 654년 제29대 왕위에 오르고 문희가 왕후가 된 뒤에 선원은 전군殿君의 존호를 받았을 것이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그때 문명태후가 선원전군仙元殿君을 낳고... 하략"의 기록은 아마 문명태후가 죽기 전에 김유신이 이미 화랑세기를 집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또한 태후로 20년간 살다가 681년에 사망했기에 '태후'로

기록을 한 것이지, 여성의 가임기와 선원의 나이를 유추해 봤을 때 태후의 신분으로 선원을 출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선품과 보통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후에 선품공의 딸 자의慈義가 문무제의 후가 되자 파진찬으로 추증했다. 공의 차녀 운명雲明은 예원공의 아들 오기吳起에게 시집갔다. 3녀 야명夜明 또한 문무제를 섬겨 궁주宮主가 되었다. 외아들 순원順元은 높은 지위에 올라 이름을 날렸다. 처음 공이 죽고 보통이 혼자 살았다.]

선품은 일찍 죽었지만 장녀 자의가 문무왕의 왕후가 되면서 4등급인 파진찬으로 추증되었다. 선품의 처 보통도 나중에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당원전군幢元殿君을 낳게 된다. 21세 선품공전의 기록으로는 당원이 정확하게 누구의 자식인지 기록이 없는데, 26세 진공전에는 당원의 부모가 등장한다.

344) 원래 이름은 중시中侍였으나 747년(경덕왕 재위시)에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의 관직으로서 시중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킹덤: 아신전' 전지현 "대본 읽고 부담감에 숨 막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킹덤'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됐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아신전' 공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이틀을 아신을 연기한 배우 전지현(39)은 20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처음 '아신전'을 다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며 "부담감이 컸다. 작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려 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스타 작가 김은희의 좀비 사극 '킹덤'의 스페셜 에피소드이자 프리퀄 격인 '킹덤: 아신전'은 역병의 시작인 '생사초'와 북방 압록강 일대의 국경지대에서 살아가던 아신의 이야기를 그린다. 92분 분량의 한 회차로 제작돼 '킹덤'의 차기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이 연기한 아신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성저아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인물이자 생사초의 비밀과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김은희(49) 작가는 "자료를 조사하다 폐사군이라는 땅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됐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걸 보고 나니 그 안에 생사초가 있다면 어땠을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어 "'아신전'을 쓰고 나서 ('킹덤' 시리즈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역병을 막고자 하는 이창과 죽음과 과멸만을 원하는 북방 사람들이 마주친다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킹덤' 시리즈의 연출을 맡아온 김성훈(50) 감독은 "'아신전'은 다음 시즌으로 쪽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며 "92분, 총 1천218컷으로 완성된 다소 짧은 작품이기에 컷 하나하나 부끄럽지 않으려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전지현의 팬이라고 밝힌 김 작가는 "아픔을 안으로 갈무리

한 무사 같은 인물로 아신을 그려냈는데, 전지현 씨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지현은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기에 출연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며 "'킹덤' 시리즈의 팬이어서 좀비로라도 출연하고 싶었다. '킹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김 작가와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된 김 감독은 "김 작가님은 이야기의 화수분인 것 같다. 마를 만도 한데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특히 '아신전'은 작가님이 쓰신 글 중 가장 완벽한 글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작가님과 호흡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김 작가는 "김성훈 감독님과 일하는 건 언제나 기쁨이다. 언제나 절 긴장하게 해주시고 자극제가 되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쪽 경계를 지키는 강직한 중심의 군관 민치록 역을 맡은 박병은(44)은 "민치록이 아신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일들이 시작됐는지가 이번 스페셜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이야기"라며 "내용 자체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다"고 밝혔다.

전지현의 아역을 맡은 김시아(13)는 "치열한 경쟁 끝에 캐스팅이 됐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것처럼 너무 좋았다"며 "영화 '삼살'을 좋아한다. 전지현 배우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신의 아버지이자번호 부락의 큰 어른인 타함을 연기한 김퇴하(56)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

는 상반되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인물"이라며 "'살인의 추억' 속 형사와 '아신전'의 타함을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혹함을 대표하는 인물 아이다간을 연기한 구교환(29)은 "작품 공개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설렘과 기대가 더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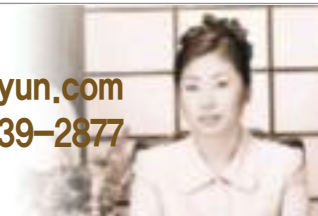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제작사는 바람픽쳐스, BA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이다.

23일 오후 4시 공개. lisa@yna.co.kr

7월 25일 - 7월 3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자신의 삶에 약이</p> <p>●운수: 당장 듣기 좋은 사탕발림 같은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신의 삶에 약이 되어줍니다. ●금전: 길흉이 반반으로 뒤섞여서 오는 운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 ●애정: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되면 더 정이 듣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1일 길일. 25, 30일 주의.</p>	<p>소띠 희비가 교차하는</p> <p>●운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기쁘고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 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순간적인 기분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지출하기 쉽습니다. ●애정: 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때입니다. 자신을 잘하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27일 길일. 25, 31일 주의.</p>	<p>범띠 시간을 두고 천천히</p> <p>●운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서투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금전: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애정: 한 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8일 주의.</p>
<p>토끼띠 여러모로 얻는 것이</p> <p>●운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얻는 것이 클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 상대에게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용띠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p> <p>●운수: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애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교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뱀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p> <p>●운수: 이런저런 걱정으로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용기내서 해보세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매매나 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부부가 화목하니 가정에 온기가 돕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말띠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p> <p>●운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다리던 돈도 무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양띠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p> <p>●운수: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려면 기급적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원숭이띠 모든 일에는 순서가</p> <p>●운수: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때를 기다리세요. ●금전: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도리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애정: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닭띠 생각했던 것보다</p> <p>●운수: 오래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다시 한 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31일 길일. 27, 29일 주의.</p>	<p>개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p> <p>●운수: 원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세요.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나마 들어올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애정: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길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0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돼지띠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p> <p>●운수: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어떤 일이트 남보다 빨리 시작해서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가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니 기분 좋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믿어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구합니다.
T. 781-457-8198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27-543-9656(John)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BTS '퍼미션 투 댄스'와 춤을...유튜브 쇼츠의 첫 챌린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유튜브의 숏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쇼츠'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곡인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의 챌린지를 시작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유튜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유튜브 쇼츠에서 이 곡의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베타 서비스가 출시된 유튜브 쇼츠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댄스 챌린지다.

'퍼미션 투 댄스'를 배경 음악으로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뒤 15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에 사용되는 춤은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국제 수어를 활용한 안무로 '즐겁다', '춤추다', '평화'라는 의미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챌린지 영상 일부를 선정해 추후 컴필레이션(편집본) 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챌린지 영상에 'Permission to Dance'와 'Shorts'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신영재 빅히트뮤직 대표는 "퍼미션 투 댄스'가 누구나 허락 없이 마음껏 춤을 춰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인 만큼,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함께 춤을 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구독자 약 5천400만 명을 보유하고 역대 조회 수 뮤직비디오만 34편 있는 '유튜브 강자'다. 유튜브

에 게재된 콘텐츠의 지난 1년 조회 수는 100억 회가 넘는다.

히트곡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로 유튜브 24시간 최다 시청 뮤직비디오 1·2위 기록도 갖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역시 이날 오전 9시 기준 1억7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rambo@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편먹고 공치리' 이승엽 "야구보다 골프가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바야흐로 골프 예능 전성시대인 지금, 시청자들은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또 다른 프로그램이 온다.

SBS TV는 16일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열고 이경규, 이승기, 이승엽, 프로골퍼 유현주와 함께하는 새 골프 예능 '편먹고 공치리(072)'가 오늘 밤 11시 30분 처음 방송된다고 밝혔다. 네

MC는 자타공인 연예계 골프 고수들과 함께 '편먹고' 골프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편먹고 공치리(072)'를 통해 예능에 도전장을 내민 야구선수 출신 이승엽(45)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골프가 (야구보다) 더 어렵다"면서 "야구보다 멘탈이 강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미노인회 야유회'에 다녀와서...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는 7월 21일 수요일 NH 소재 Salisbury Beach State Reservation에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야유회를 가졌다. 80여 명의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원과 그외의 임원들과 봉사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답답했던 어른들이 오늘만큼은 밝고 환한 웃음으로 바닷바람이 실어다주는 상쾌함으로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이렇듯 건강하니 함께 마주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깨닫는 날이었다.

2021년 사랑방 첫 모임은 이렇듯 야외에서 갖게 된 것이다. 점심은 서영애 한인회장이 맛난 도시락과 콩국수를 준비했다.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또 걱정이 앞서는 이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음식 준비였다. 어른들께서 도시락을 기분 좋게 받아드시고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 잡수셨다. 보는 내내 마음이 뿌듯하고 평안해졌다. 오랜만에 뵙는 어른들도 많이 계셨다. 반가움이 손을 잡고 허그를 하면서 그동안

서로의 안부와 일상을 물으며 얼굴색에 훈조빛이 돈다.

더욱이 이 감사했던 것은 '보스톤 할매'로 유명하신 유정심 권사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큰아들과 남동생 그리고 언니(유영심 장로)와 함께 야유회에 참석하신 것이다. 언제나처럼 투병 중에도 맑고 밝은 모습의 긍정적인 삶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어 더욱더 감사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유정심 권사의 빠른 쾌유를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다. 유정심 권사는 아픈 중에도 여러 모임의 카톡방에 병상일기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며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여러 어른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중 반가운 분이 오셨다. 수필가 민유선 선생님이 바깥 선생님과 함께 오신 것이다. 몇 년 동안 뵙질 못했었는데, 연로하신 모습에도 여전히 정갈한 모습으로 이번 야유회에 참석하시어 여러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뵙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참석하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팬

데믹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마저 답답해진다. 젊은이들도 바깥출입을 조심하며 살았는데, 어른들이야 어떠하셨을까 싶은 마음이 무거워질 때쯤 한미노인회의 야유회가 가슴을 훑어준 것이다.

보스톤한미노인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윤철호 회장을 비롯해 이기환 이사장, 김순호 부회장, 한순용 부회장, 권정자 재무, 최영진 회계, 서영애 총무 여러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는 특별히 오래도록 총무로 봉사했던 서영애 한인회장의 자리에 새로운 총무 테일러 최(Taylor Choi) 씨가 맡아 수고를 하게 되었다. 이렇듯 말 없는 수고와 봉사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날을 맞지 못했으리라. 서로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보람된 삶이리라.

그리고 이번 보스톤한미노인회에 매사추세츠한인회 서영애 회장과 장인숙 이사장, 배준호 부회장, 신영 부회장이 참석을 해 어른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다. 장

이사장과 배 부회장은 어른들의 게임을 담당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위해 수고했으며, 함께한 모두가 환한 웃음과 그동안 팬데믹으로 움크려 있던 가슴을 활짝 펼치게 했다. 여기저기에서 깔깔거리며 터져 나오는 어린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또한, 플로리다로 이사하신 유영심 장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오랜만에 어른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즐겁게 몸풀기를 하였다.

이번 야유회는 그 어느 때의 야유회보다 즐거움이 더욱더 컸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해서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포용을 하면서 마음의 눈물이 눈시울을 적셨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말이 실감나는 것이다. 하얀 백발과 얼굴의 주름마저 숨기우는 '말간 웃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어른들의 환한 웃음이 서로의 보약이 되었다. 어른들의 그 웃음을 보면 서나 역시도 감사하고 행복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듯 환한 웃음으로 걸어가시길 기도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여름이 할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그닥 오래된 일은 아니다. 아직 컴퓨터 활자가 나오기 바로 전이다. 검열이란 단어도 낯설지 않을 적인데, 신문제작 과정을 듣고 배웠다. 집자集字이며 조판組版이고 교열校閱이란 말이 그러하다. 말은 사뭇 어렵지만, 활자를 뽑아판을 짜는 일은 집자이며 조판이라는 거다. 일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고, 조판할 적엔 금속활자를 썼다.

중학교적인가 보다. 금속활자는 한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먼저 만든것으

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선생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귀에 익을 만치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인가. 초기 한글 금속활자들이 발견되었다. 한국신문은 흥분했는데, 한국이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증거라는 거다. 발견된 활자 무더기중, 연주連鑄활자도 섞여 있다고 했다. 연주란 말 역시 어렵지만, '~하며, ~하고, ~이나' 따위의 연결어라고 덧붙였다. 토씨나 조사쓰음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같이 발견된 ㅎ, ㅁ, ㅎ 등 활자들은 생경하다. 자음일텐데, 과연 어떻게 발음했을까? 그건 궁금하다.

올여름에도 광화문글판에 새글이 등장했다. 제목은 심상치 않다. '여름의 할일'이라 했으니 말이다. 나는 여름에 할일이라 읽었는데 조사 하나가 바뀌니 여영 다른 말이 된거다. 역시 한글엔 조사의 역할이 대단하다.

올여름의 할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김경인, 여름의 할일)

실은 그랬다. 어영부영 더운 날들을 겪으며 여름에 해야 할일을 미루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몇 주전 폭우가 쏟아져 적이다. 지붕에서 빗물이 넘쳐 쏟아져 내렸다. 제대로 배수할 수 없게 거터가 막혀있었던 거다. 아차 싶었는데, 어영부영 차일피일 게으른 덕분이였다. 아내의 흥기는 눈썹에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여름에 해야 할 일을 미뤘고, 때를 놓쳤던 거다.

올여름 할 일들은 모두 마치시기를 바란다. 한창 여름이다만, 아직도 할일이 쌓여 있을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곧 선선한바람이 불게다. 시절은 가을로 연결連結하는철이다.

희망은 희망인가 아니면 ㅎ | 망인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12)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불러일으키는 질병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는 바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식생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에 즐비한 음식점,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빠른 배달 음식 등, 우리의 주변엔 늘 먹을거리로 가득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먹는 문제를 고민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늘 배부르게 먹어도 허하고,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길러야 할 실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배부른 영양결핍에 빠진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들여다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일상속, 끼니에 맞춰 식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늦은 밤이라도 고열량, 고염분 음식에 주류를 곁들인 포식을 해야만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듯하다. 그래서일

까, 해를 거듭할수록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얻는 환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을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성인의 비만율은 30%를 돌파, 2016년에는 남성의 비만율이 40%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당뇨병 환자도 증가 추세다. 당뇨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며,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당뇨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동맥경화증, 시력 상실, 만성신부전 등 급성·만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염, 과민성대장증후군, 역류성식도염 등 다양한 위장질환을 앓는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평소 식습관만 제대로 교정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쉬운 것부터 실천하자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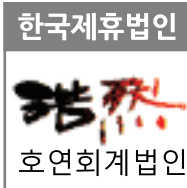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천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첫 번째, 아침밥을 거르지 않는 것이다. 미국 프리드먼 영양과학 대학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밥을 거른 집단은 제대로 된 식단으로 아침을 챙기는 집단보다 비만율이 약 4.5배 높게 나왔다고 한다. 최근 간헐적 단식 요법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세 번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아침식사는 출근 준비로 인해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아침부터 뇌와 근육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할 순 없더라도 영양소가 잘 갖춰진 음식이나 과일 등으로 대체한다면 뱃속도 든든할뿐더러 몸 속 신진대사도 원활해져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을 쉽게 느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식사 시간을 제때 지키지 않으면 신체는 식사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잘 챙기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것이

다. 언제 어디서나 배달이 가능해진 요즘이지만 짙은 배달 음식 섭취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대부분의 배달 음식은 자극적이고 기름지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 신체에 많은 부담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저녁을 부실하게 챙겨 먹으면 야식으로 배달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잠들면 위산과 음식물을 역류시켜 만성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야심한 밤에 배가 고프다면 칼로리가 낮은 생채소나 샐러드를 먹는 것이 좋고,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할 때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메뉴를 고려하여 주문하도록 하자.

“눈 속 날개 모양조각(익상편) 수술해야 하나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진수 씨는
검색을 하고**



**하나 씨는
예약을 하고**

**WINNIE 씨는
백신 접종소로
향합니다**



**오늘 진수 씨가 모두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세 이상이면 모두 COVID-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백신은 COVID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거의 100% 예방합니다.

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아껴냅시다**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치과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텍 [99만원 ~]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 5 미백 [30만원 ~]
- 6 전체틀니 [180만원 ~]
- 7 크라운 [40만원 ~]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 (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 옥스치과(강남역)
클라인치과 (압구정역) / SKY치과(역삼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등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 등등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 Tel : 070-4141-4040
-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 이메일 : huram@huram.kr
-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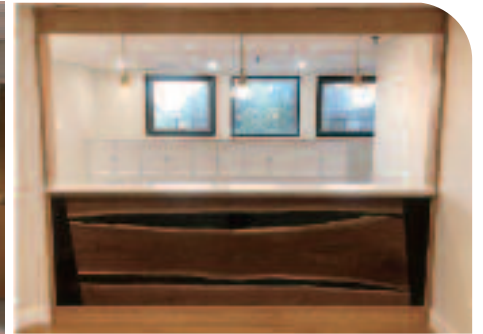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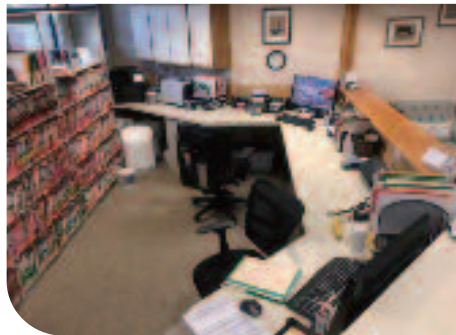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9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